

관습화된 일상적 제스처

롤란트 포스너*

1. 금기와 관습

모든 인간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다. 이는 종종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된다. 술 혹은 우유를 마시는 것, 상급자 혹은 하급자가 있는 데서 음식을 먹는 것, 일요일과 토요일에 일하는 것, 동성끼리 혹은 이성과 춤을 추는 것, 너무 어리거나 혹은 너무 나이 든 남자 혹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 신이나 귀신, 혹은 죽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다. 존중되는 금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금기를 어기는 것은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사회의 요구와 규제에 대한 필요가 항상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관습적인 금제를 전혀 없애지는 않으면서 완화하는 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제한을 두어 금기를 어기는 것이 허락된다. 정당화되지 않은 채 금기를 어기는 것은 속한 문화에 대한 불경으로

* 세계기호학회 회장.

간주된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금기를 어겨도 되는 상황에서는 금기를 어긴 사람이 문화에서 도태됨 없이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는 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동을 “관습화된 금기 위반(ritualized taboo viola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의 관습화라는 특징은, 금기의 위반이 엄격한 규제 하에 발생하며, 기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즉 금기는 조용하게 어겨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져서, 금기를 어기면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금기 위반을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관련 행동을 과장하고 단순화하며 강화시킨다. 어느 문화에서나 볼 수 있는 카니발 형식의 축제에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관습화는 금기의 맥락 밖에 존재한다. 아무런 의도 없이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나의 기호처럼 해석하게 된다. 손에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한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것을 집으려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인가 먹을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빈손으로 먹는 시늉을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고, 모자챙을 올리거나 헬멧을 벗는 것은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습화된 금기 위반에서, 이러한 행동의 동작 유형은 관련된 움직임의 과장·단순화·강화 등을 통해 더욱 잘 인식될 수 있다.

의도가 없어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호처럼 인식되는 움직임들은 인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사실이 줄리안 헉슬리 Julian Huxley(1914, 1923, 1966), 콘라드 로렌츠 Konrad Lorenz(1961), 이레나우스 에이블 에이베스펠트 Irenäus Eibl-Eibesfeldt(1970 and 1976)와 같은 생물학자들에게 관습화라는 개념을 동물들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동작 생물학의 기본 용어로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에 좋은 결과를 낳아,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관습화의 개념이 이번에는 인간 행동의 개체 발생학과 인류 문화의 발생학에 적용되게 되었다. 1966년 이래 이러한 접근은 “인간 행동학 human ethology”으로 포괄되었다(cf. Eibl-Eibesfeldt, 1976: 14). 독일의 베르너-레이메르스-슈티프퉁 Werner-Reimers-Stiftung에서 1970년 후반에 인간 행동학의 한계와 잠재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했을 때, 관습화의 개념은 주요 쟁점의 하나였다(cf. von Cranach et al., 1979).

다음에서 나는 동물 세계에서 나타나는 관습화의 본질적인 면들을 요약하고, 그것을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의 관습화와 비교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나는 “감각 반응 장갑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 Gesture Recognition with Sensory Gloves”이라는 여러 학문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자료를 이용할 것인데, 이 프로젝트는 베를린 공과대학의 기호학연구소에서 수행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베를린 일상 제스처 사전’을 만드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http://ling.kgw.tu-berlin.de/semiotik>에서 볼 수 있다. 일상 제스처를 관습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금기 위반과 일상 제스처가 동일한 설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행동 유형

동물 행동학에서, 인간의 행동처럼 동물의 행동은, 다양한 문화에 의해 유전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 행동 유형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어떤 동물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늘 같은 유형의 행동을 수행한다면, 다른 동물들은 얼마 안 있어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행해질 때마다 특정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 유형의 실행은 그들에게는 그 특정 목적을 지시하는 기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다 심화된 행동의 기호화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cf. Eibl-Eibesfeldt, 1979: 82).

자신의 행동이 그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동물은 적이나 경쟁 상대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위해 불분명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 행동을 특히 분명하게 실행함으로써 동족들이 어려움 없이 의도를 알아채게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 동물이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알리는 도구로 그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행동 유형은 의사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만 지시되는 것(수신자-관련 기호)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이제는 의도적으로 다른 동물들에게 만들어지는 지시 행위(발신자-관련 기호, cf. Posner, 1993: 230)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이 행동 유형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며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동시에 다른 동물들에게 이 의도를 알리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은 행동 유형에 변형을 가져오게 되며, 바로 이러한 변형을 헉슬리(1914)와 에이블 에이베스펠트(1976)가 “관습화 ritualization”로 포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생물에게 있어서, 의도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의도를 다른 생물에게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행동 유형을 동물 행동학에서 “관습 rituals”이라고 부른다. 빅클러 Wickler(1967)는 그것을 “상징적 행동들 symbolic actions”이라 부르며, 하스 Hass(1968)는 “신호 자극 signal stimuli”이라는 용어를 쓴다.

I. 동물 행동 유형

동물 행동학자들이 연구한 동물에 있어서의 관습과 관습화의 경우들은, 모두 관계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의도로 특징지어진다(cf. Tembrock, 1997. 다음에서 논의되는 모든 예들은 von Cranach, 1979에 나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Eibl-Eibesfeldt(1979)와 그의 동료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다뤘다.

- 짝짓기와 번식을 준비하는 유혹과 구애 관습
- 새끼들을 기르는 양육과 보호 관습

- 먹이 포획을 위한 사냥 관습
- 종족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갈등에서의 싸움 관습
- 진정과 복종 관습

이러한 관습들의 흥미로운 점은, 이 관습들의 물리적 의도가 그 의도를 지시하는 목적에 가려져 대단히 축소될 수 있으며, 이 지시하는 행위가 지시되는 행위를 불필요하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피리새는 새끼들에게 입 맞추면서 먹이를 주는데, 유혹할 때는 이 행동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성숙한 피리새는 더 이상 서로 먹이를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먹여준다는 물리적 의도는 없어진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교미 상대의 부리를 직접 무는 것으로 관심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인간의 혀로 하는 입맞춤이 이와 유사한 기원을 갖는다. 몽고즈 여우원숭이 Mongoz lemurs(원숭이의 일종)는 새끼의 털을 핥거나 자신의 이빨을 사용하여 빗어줌으로써 피부를 보호해준다. 그러나 성숙한 몽고즈 여우원숭이는 교미 상대에게 인사를 할 목적으로, 거리를 둔 채 신체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핥거나 빗질하는 움직임을 행한다. 사람에게서는 손에 입을 맞춰 날려보내는 시늉을 하는 것이 비슷한 기원을 갖는다. 파란 발 부비(갈라파고스 군도에 서식하는 새의 유형)는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교미 상대에게는 구애하기 위해 둥지 재료들(가지나 진흙, 유리 등)을 선물한다.

이러한 예들에서 관습은, 한편으로는, 원래 의도되는 행동을 관련된 대상물 없이 실행하며(먹이 없이 먹여주는 행동에서 입맞춤이 유래하며, 털 없이 털을 만져주는 행동으로부터 인사가 유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의도된 행위의 실행 없이 대상물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둥지 만드는 재료가 구애의 도구가 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예에서, 어떤 물리적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의사 소통의 목적을 수행한다(유혹하기, 인사하기, 구애하기). 이것으로 의사 소통 의도가 원래 의도와 전적으

로 반대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포유동물들은 먹이를 먹을 때뿐 아니라 서로 싸울 때도 이빨을 앙다문다. 따라서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물 준비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일종의 위협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원숭이들에게 있어서 물려고 입을 벌리는 것은 긴장을 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어린 원숭이들이 '긴장 풀린 입 벌리기'를 하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이 놀 준비가 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는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은 매우 다른 문화들(파푸아인, 부시맨, 야노마미 인디언과 유럽인)에 속한 아이들의 웃음이나 표정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내준다 (cf. Eibl-Eibesfeldt, 1979: 20).

비비원숭이들에게 있어서 암컷이 성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음부, 특히 음순 부위가 눈에 띄게 색깔이 변하며 부어오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음문을 보이는 것은 수컷의 공격성을 꺾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젊은 수컷에 의해 모델로 이용된다. 이들은 그들의 성기를 무리 내의 상위 원숭이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을 진정시킨다. 이는 본능적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이때 젊은 비비 원숭이 수컷의 성기 주변의 털은 처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의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는 수컷의 성기를 내보이는 것은 진정시키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공격성을 나타낼 때 이빨을 드러내는 행동은, 놀 때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는 그렇게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 주목하자. 그리고 암컷 원숭이가 성교 욕구의 표시로서 성기를 보여주는 것은 상위 원숭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컷이 성기를 내보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헉슬리에서 에이블 에이베스펠트에 이르는 동물 행동학자들은, 행동 유형의 관습화의 기표(記票)signifier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의(記義)signified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를 기록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

기억에 있어서는 분명하다: 물리적 의도에서 전언으로의 기능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 변형된 먹이 먹이기와 수정된 등지 만들기는 유혹과 구애의 수단이 된다(조류).
- 변형된 피부 보호는 인사의 수단이 된다(몽고즈 여우원숭이).
- 변형된 이빨 드러내 보이기와 물기는 긴장 완화와 놀이의 수단이 된다(포유류).
- 변형된 성기의 사용은 진정시키기의 수단이 된다(원숭이).

기표에 있어서, 관습화된 행동 유형은 다음의 변형을 거친 결과 원래 움직임과 달라진다.

1. 과장: 동작 과정이 그 폭과 빈도에 있어서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명료해진다.

2. 간결화: 동작 과정이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로 압축된다. 이것으로 더욱 명료해진다.

3. 전형화: 동작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변 상황 맥락이 줄어들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해 보인다.

4. 동일화: 부분적으로 대조되는 행동의 요소들(느림 vs 빠름, 앞으로 vs 뒤로 등)이 조정되어 동작 과정이 하나의 단위처럼 보인다(예를 들어 혼란스런 연인이 앞뒤로 서성이는 움직임과 대조되는 수컷 큰 가시고기의 지그재그 움직임).

5. 반복: 전체적인 혹은 부분적인 행동의 규칙적인 반복은, 신호 전달로서의 행동에 신호 수신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6. 자세 바꾸기: 신호 수신자에 따라 자세가 변한다. 대개 신호 발신자는 신호 수신자를 향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예를 들면 흥분해서 뽀뽀하는 오리들) 제3자(말썹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를 향해 돌아서는 척하기도

한다.

7. 강화: 이전 혹은 이후의 행동들과 비교하여 관습화된 행동은 보다 강렬하게 수행된다(특히 보다 분명하고 주의 깊게, 대상을 향해 특별한 자세를 취하면서). 따라서 다른 행동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II. 인간 행동 유형

인간의 행동은 동물의 행동보다 훨씬 다양하며, 대개는 그 행동에서 생존과 연관된 분명한 의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내기 어렵다(cf. Gehlen, 1940). 그러나 물리적 의도를 지닌 인간 행동과 의사 소통 의도를 지닌 인간 행동을 구별하는 것은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나의 논문은 바로, 자연스런 반사 행동(하품, 웃음, 울음과 같은)의 변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인간의 일상 제스처가, 어떤 물리적 의도를 지닌 행위들로부터 유래했으며, 이 행위들이 그 의도를 지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단순히 지시하는 것을 위해 원래의 의도를 점차 잃어갔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행동의 계통 발생학과 그것의 역사적 발전에 적용된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문화 행동을 습득하는 경우처럼, 행동의 개체 발생학에 있어서도 해당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동물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일상적인 인간들의 제스처는 선천적인 동작 유형에 거의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습득된 동작 유형에 그 기초를 둔다. 다음에서 나는, 고정된 의미가 있는 관습적 동작 유형과 같은 상징적인 일상적 제스처를 다룰 것인데, 이는 의사 소통의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다(용어는 Ekman, Friesen, 1969와 Desmond Morris, 1994의 예를 사용하겠다).

중점적으로 다룰 예는, 상체 앞에서 힘차게 손을 흔드는 제스처로, 이것은 원래 어떤 물리적 의도를 수행하는 행동 유형이다. 여기에 물리적인 대상물도 연관되는데, 불, 오븐이나 조리 기구의 손잡이로, 거기에 손가락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동 유형은 확실한 의미의 의사

소통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상물-관련의 상징적 제스처를 다룰 것이다.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어떤 대상물이 관련된 상징적 행동을 수행하고 이해하도록 배웠는데, 이들은 대개 다음의 과정들을 거친다.

1단계: 물리적 의도를 갖는 자기 지향적 행동.

초기 상황: 한 아이가 조리 기구의 손잡이를 만지고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 손을 떼다.
- 후후 분다.
-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 상체 앞에서 손을 흔들어난다.

처음의 충격이 누그러지면 얼굴 표정은 점점 풀어지고 아이는 계속해서

- 손을 흔들며,
- 덴 곳을 식히느라 후후 분다.

분석: 이 행동은 이전의 습득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어린 아이는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아이는 무력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고통을 진정시키려고 즉시 어머니나 보호자를 소리쳐 부른다. 바로 이 어머니나 보호자가 아이에게 덴 손을 식히기 위해 1) 손을 흔들며 2) 후후 불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빨리 낫는다고 믿도록 만드는 노래, 예를 들면 “나아라, 나아라 상처야” 같은 노래나 주문을 외우게 한다. 한번 이렇게 한 아이는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 진정시키는 동작을 하게 된다. 우는 대신에 아이는 손을 식히는 동작에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순수하게 물리적인 의도로 행해지는 동작을 “과업 동작task

movements”이라고 부른다. 과업 동작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적절하게 행해질 수 있고, 따라서 물리적 의도의 자기-지향적 행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2단계: 타인-지향적 행동(표현적 기능의 자기 지시와 서술).

초기 상황: 우연히 이 상황에 있던 사람은, 아이의 동작 의도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인지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일그러진 얼굴은 아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손을 흔드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후 부는 것은 아이가 손을 식히려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한 아이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데 모종의 기여를 하고 싶을 것이다. 이는 동정을 받고 싶을 때 자주 일어난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아이는

- 그 사람을 바라본다.
- 과장되게 손을 흔들어댄다.
- 보다 큰 소리를 내며 후후 분다. 그리고
-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분석: 원래의 과업 동작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아이는 그 과정을 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행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손을 흔들고 후후 불어대는 것은 일그러진 얼굴과 마찬가지로 메타-동작 meta-movement이 되어, 그 동작들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기표signifier가 된다. 일그러진 얼굴 표정은, 1단계에서는 단순히 고통의 현상이었지만,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서술체predicator가 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시한다. 손을 식히려고 후후 부는 행위는 하나의 신호가 되어 이것으로 아이는 자신이 입은 상처가 불에 덴 성격의 것임을 지시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행동 유형은 손이 화상을 입어 고통스럽다는 의사 전달의 의도에 기여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과장되게 손을 흔들어댐으로써 지시하는 작용
- 고통을 나타내는 표정을 지음으로써 서술하는 작용
- 과장되게 후후 부는 것으로 보다 심화된 서술을 하는 작용

이러한 모든 메타-동작들은 개인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행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설 Searle(1969)에 따르면 표현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메타-동작들이 동시에 과업 동작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동작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에 덴 고통을 지시하는 동시에 그 고통을 진정시키는 것을 돕는다. 즉 이 동작들은 손을 식히는 과정을 지시하는 동시에 손을 식히는 것이다. 여기서 메타-의도 meta-purpose들과 목표 의도 object purpose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과장되게 손을 흔드는 것(2.1의 1), 일그러진 표정은 후후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진정시키고 식히는 데 이용되며,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신호 수신자를 바라볼 때 행해지는 자세 바꾸기도(2.1의 6), 식히고 진정시키는 것을 숨기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타인-지향적인 과업 동작이며, 이것은 자기 지시적이고 서술적이다.

3단계: 고통을 일으킨 대상물을 지시(단정의 기능을 갖는 구체적인 서술과 그 효과에 대한 언급).

초기 상황: 더 이상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진 않지만, 동작은 계속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은 고통 자체가 아닌 고통을 야기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아이는 뜨거운 조리 기구를 보란 듯이 바라보면서(지시적인 눈짓) 이러한 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는

- 손을 힘차게 흔들고
- 시끄럽게 후후 불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한다.

분석: 이러한 조절(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바라

보는 것)은 아이가 손을 댄 구체적인 대상물 즉 조리 기구의 손잡이나 조리 기구 그 자체라는 또 다른 지시 대상물을 이 상황에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지시적일 뿐 아니라 모리스 Charles W. Morris(1938)에 의하면 외연(外延)denotation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처음의 자기 지시적인 맥락에서 손 흔들기는 서술하는 기능을 얻는다. 이것으로 이제 조리 기구는 고통을 유발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시끄럽게 후후 불어대고 숨을 들이쉬는 것은 여기서, 뜨거운 조리 기구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화상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화상 입은 손가락 대신에 손 전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혹은 아이의 옷이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지시 대상물을 보란 듯이 바라봄으로써 지시하는 작용
- 세계 손을 흔들편으로써 서술하는 작용
- 시끄럽게 후후 불어대고 숨을 들이쉬으로써 언급하는 작용

이러한 작용들과 함께 아이는 이 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모두 종합하면, 이 작용들은 단정의 기능 assertive function을 갖는 것이다.

손을 세차게 흔드는 것과 시끄럽게 후후 부는 것은 2.1의 1의 내용인 '과장'에 해당한다. 고통스러움을 흉내내지 않는 것은 2.1의 2의 내용인 '단순화'에 해당한다.

4단계: 잠재적 원인에 대한 지시(지령의 기능 directive function으로 추상적인 서술을 하는 것).

초기 상황: 손가락에 화상을 입지 않고, 뜨거운 조리 기구가 옆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동작을 적절히 행할 수 있다.

- 힘차게 손 흔들기

· 시끄럽게 후후 불어대고 숨 들이마시기.

이때 이 동작들은 손을 식히고 고통을 진정시키는 과정을 모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보란 듯이 조리 기구를 보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이 데었을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킨 뒤 이러한 경험이 그 조리 기구로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다.

분석: 이런 유의 상황에서 매타-동작은 문제의 과업 동작들과는 완전히 분리된다. 3단계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에 행해진 '단순화'가, 여기서는 손 흔들기와 후후 불기에 적용된다. 보란 듯이 보는 것도 그 역할이 바뀐다. 즉 더 이상 고통스런 화상의 원인이던 원래의 구체적 대상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다른 대상물을 지시하게 된다. 이 (단일한) 3단계의 외연은 (일반적인) 외연이 된다(Morris, 1938: 7). 이 작용은 동작주로 하여금, 그 화상을 원래 일으켰던 조리 기구를 가리키게 할 뿐 아니라, 같은 성격의 분류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물들(즉 조리 기구, 오븐 혹은 모닥불 등)을 가리키게 할 수 있다.

손 흔들기와 후후 불고 숨 들이마시는 행동들은, 분명히 켜 있지 않은 조리 기구들에 관해 행해지기 때문에, 이 조리 기구가 사실상 매우 뜨겁다는 의미로 이해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믿게 하려면 이 행동들은 보다 추상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서술의 의미로 '매우 뜨거워질 수 있다'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의 작용은 대개 경고의 목적으로 행해지며, 따라서 이것은 지령의 기능을 갖는다.

관련된 동작 유형에 있어서 후후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 흔들기는 원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원래의 상황과는 완전히 분리된 고통 완화 행동들의 반복으로, 보다 심화된 형식적 변형을 가져온다.

'자세 바꾸기' '과장'(손 흔들기와 후후 불기) 그리고 '단순화'(고통스러운 흉내내지 않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전형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반복의 성격은 모든 손 흔들기를 점점 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만들며 어떤

상황에서든 후후 부는 것도 동일하게 만든다(2.1의 3).

물리적인 과업이 없어지고, 처음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손 흔들기와 후후 불기를 물리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행위들의 형식적인 면들은 그것이 고통 완화에 적합한지 여부보다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행동들은 이 행동 구성 요소들의 유형화인 '단일화'를 거치게 된다(2.1의 4).

5단계: 영역 확장(무제한의 기능을 갖는 추상적인 서술).

처음 상황: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서 고통의 원인이 된 조리 기구의 외연은 발열 기구 일반을 지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이라는 구체적인 서술은,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울 수 있는'이라는 추상적인 서술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지시의 사용은 대상물의 영역 모두를 제스처로 지시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 영역은 확장될 수 있다. 추상적인 서술은 새로운 유형의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대상들은 보다 더 추상적일 수 있다. 이로써 손 흔들기, 후후 불기와 같은 동작 유형은 의사 소통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보다 심화된 적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작의 형태는 추가적인 변형을 거친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토마토를 입에 넣었다가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 그들이 입을 데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번에는 손가락이 아니라 입을 텐 것인데도, 손을 흔들며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후 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손 흔들기의 동작 과정은 '전형화'되고 '유형화'되었으며, 이제 델 만큼 뜨거운 대상물이 조리 기구나 오븐 혹은 불과 같은 발열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손가락이 아닌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델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에 적합해진다.

분석: 여기서 우리는 손 흔들기의 동작으로 지시되는 대상물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손 흔들기를 사용하여 서술된 대상물은 보다 추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손가락을 데게 만든 것이 아닌 대상물에 대해서 이 제스처를 적용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손가락을 덴 경험과는 관계없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2,3,4단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어린 시절의 상황들로부터 제스처를 발전시키는 대신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기호화된 형태를 교육받아 그러한 형태의 제스처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제스처는 루이스David Lewis(1969)에 의하면 관습이 되었으며, 이것은 의미와 함께 형태에 있어서도 심화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형태에 있어서, 손 흔들기, 후후 불기와 숨 들이마시기가 더 이상 불에 덴 손가락을 식히기 위한 과정의 모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실제적인 진정과 그것의 모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므로, 손 흔들기와 후후 불고 숨 들이마시는 것의 밀접한 조화는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행동 유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초기 단계에서는 손을 화상 진정의 목적에 의해 필요한 만큼 많이 흔들었는데, 이제는 매번 이 제스처를 할 때면 정확히 세 번 흔들게 된다. 이것은 반복을 표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동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이 2.5의 5의 내용인 '반복'으로 불리는 특징이다.

이러한 원래 의미와의 분리는 호흡에도 자율성을 부과하여, 의사 소통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원래는 불에 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던 후후 부는 소리도 이제는 상처를 진정시키는 것이나 그 흉내내기의 기능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명료한 발음에 접근하게 되고, 포기Poggi(1981)에 의하면 하나의 '감탄사'가 된다. 동시에 원래는 그 편차가 컸던 후후 부는 소리의 정도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변향으로 축소된다.

1. 가벼운 화상인 경우 후후 불기 위해 입술을 힘주어 모으게 되며 그 결과 후후 부는 소리는, 보통 입술을 모으고 내는 휘파람 소리와 닮게 된

다. 언어적 표현으로 들어온 것과 유사하게 휘파람은

· 소리 없는 마찰 양순음 [ϕ]과

· 강조되고 긴 닫혀진 원형의 모음 [ʻy:]에 이어 비강세의 짧은, 열린 뒷모음 []의 연속으로 해석된다. (‘이’에서 ‘오’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때 호흡의 강도가 작아지며 모았던 입술을 풀게 된다.) 결과 [ϕʻy:o]가 된다. 로마자 표기를 빌리면 대략 ‘feeu’라는 형태로 글자화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대개 세 번 내게 되며 동시에 손도 세 번 흔든다. [ϕʻy:o] [ϕʻy:o] [ϕʻy:o]. 그러나 이것은 [ϕʻy:o:::]로 길어질 수 있으며 이 형태는 세 번의 손 흔들기를 수반하거나 뒤따르게 된다.

2. 화상 부위가 좀 더 큰 경우, 대개 입은 보다 크게 벌리게 되며, 호흡은 보다 강해지고, 내쉬는 호흡이 줄어든 후에야 입술을 모으게 된다. 이 소리는 손 흔들기와 동시에 내게 되며 이것을 세 번 하게 되는데, 즉 [j y j y]이 되어, 글자로는 ‘oiyoiyoi’로 나타낼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명료화된 1의 휘파람 소리는 들이쉬는 소리처럼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은 휘파람 소리를, 숨을 몰아쉬는 전형화된 소리처럼 만들게 된다. 반면 2의 소리는 숨을 내쉬는 소리로만 들린다.

손 흔들기와 동시에 감탄사를 말할 때, 강조된 모음을 분명히 발음하는 것은 손을 내리는 행동과 조화를 이루는 반면, 마지막 음절의 모음은 손을 들어올리는 것과 함께 행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을 흔드는 동작은 청각적으로 강조되며, 전체 동작이 다른 신체 동작과는 구별되게 된다. 이것이 2.1의 7에서 말한 ‘강화’의 경우에 해당된다.

의미에 있어서 동작의 관습화는, 고통의 표현(2단계), 더 안 좋아질 수 있었다는 언급과 불운의 표명(3단계), 잠재적인 위협의 경고(4단계)와는 다른 의도들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만든다. 동작 주체는 이제 언명 declaration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인식할 수 있는 효과들과 가능한 모든 의사 소통 기능들(Searle, 1969에 따르면 비언어적인 힘) 가운데서 선택권

을 갖게 된다. 손 흔들기로 단정(“당신도 이것으로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령(“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시오!”), 의문(“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혹은 “정말 손에 화상을 입고 싶은가요?”), 표현(동정으로 “저런, 손에 화상을 입었군요!” 혹은 놀람으로 “정말 왜 자꾸 손에 화상을 입는 건가요!”), 명령(위협 조로, “감히 손에 화상을 입다니!”)을 나타낼 수 있다. 의사 소통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 3단계에서의 다른 행동 유형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표정을 이용하게 된다.

6단계: 영역의 변화와 은유적인 혹은 환유적인 서술.

초기 상황: 두 젊은 남자가 길을 걷다가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둘 중 하나가

- 동행인을 바라보며
- 고갯짓으로 여자를 가리키고
- 늑대 울음 소리 같은 것을 내며(위에서 감탄사로 묘사된 소리)
- 손을 세 번 흔드는 것은 유럽의 남부 지방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장면은 빌리 와일더의 1959년도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도 나오는데, 잭 레먼과 토니 커티스가 마릴린 먼로를 봤을 때 했던 반응이었다. 이러한 남자의 행동이 전달하려는 뜻은, 남자의 관점에서 이 여자가 발열 기구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물을 때 분명해진다. 대답은 대개 물론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공통점은 잠재적으로 매우 뜨겁다는 것이며, 알려져 있다시피,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심지어는 여자가 여자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서로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매력과 공포의 반대 감정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 이러한 대답은 불과 관련된 이 문제에 은유를 가져온다. 이 은유

들은 레이코프 Lakoff(1987: 92ff), 그리고 레이코프 Lakoff와 존슨 Johnson (1980: 49ff)에 의해 인상적으로 설명되었는데, 불과 그에 관련된 각종 기술적 장치들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cf. Posner, 1984: 217ff), 비교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종종 은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서 불에 관련된 언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사람은

- 불을 놓을 수 있고, 불장난을 할 수 있으며
- 불에 기름을 붓고, 불로 쇠를 달굴 수 있으며, 불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 불을 쥘 수도 있고 손, 입, 혀 등을 델 수도 있으며, 전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 머리에 불이 날 만큼 화가 날 수 있고, 혀에 불이 날 만큼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들 수도 있고,
- 분신을 할 수 있으며, 불 뿜는 연설을 할 수도 있다.

불은

- 깜빡이며, 빨갛게 타고,
- 소리내며 타고, 너울거리며 타고, 활활 타며
- 뜨겁고
- 편안함과 즐거움 혹은 공포감을 준다.

불처럼

- 여자가 상처를 줄 수 있고, 눈이 빛날 수 있으며, 목이 아플 수 있고

불난 것처럼

- 감탄 혹은 질투로 타오를 수 있고

- 사랑 혹은 증오의 불꽃으로 피어오르든지 혹은 단순히 독한 술을 마시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은유들은 두 가지 요소에 기인하는 손 흔들기의 해석과 관련된다.

하나는 위에서 다뤄진 모델 상황인데, 여기서 아이는 불에 매료되고(불꽃의 형태든 오븐이든 조리 기구든 간에) 손가락에 화상을 입지만 고통을 진정시키고 더 큰 위험을 모면한다. 만일 모델 상황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상황들에서 비슷한 힌트를 얻을 것이다(5단계의 초기 상황 참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매우 매료시켜서 '손에 화상을 입히는' 대상 유형의 잠재성이다. 예를 들어

- 화끈한 여자 hot woman: 황홀한 밤을 약속한다.
- 화끈한 남자 hot guy: 신나는 인생을 약속한다.
- 화끈한 일 hot file: 대단한 재미를 약속한다.
- 화끈한 거래 hot transaction: 짹짹한 수입을 약속한다.
- 화끈한 상황 hot situation: (교통 상황) 짜릿하고 아찔한 운전을 약속한다.

이러한 대상들 각각에 대해 손을 흔드는 것은 (감탄사를 동반하든 안 하든) 그 대상을 뜨거운 것으로 특징짓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서술은 각각의 경우에 매우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뜨거운 사랑은 신나는 인생, 대단한 재미, 짹짹한 수입 혹은 짜릿하고 아찔한 운전과는 다른 것이다. 적절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손 흔들기를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여기서 지시된 대상이 손가락을 덴 모델 상황의 특징들과 어떤 유의 연관을 갖는지 묻게 된다. 어떠한 진정될 수 있는 상처가 발생하는가? 어떠한 더 큰 위험 가능성이 있는가?

- 화끈한 여자는 황홀한 밤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녀를 접하면 쉽게 화상 입은 아이처럼 될 수 있고, 그녀의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다.
- 화끈한 남자는 신나는 인생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와 어울리면, 전에는 모르던 흥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흥분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 화끈한 일은 대단한 재미를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시키는 사람은 그 재미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을 망칠 수도 있다.
- 화끈한 거래는 짹짹한 수입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하다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경찰에 잡힐 수 있다.
- 화끈한 (교통) 상황은 짜릿하고 이질한 운전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동작주는 종종 그 동작을 하면서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해석 과정에 동참한다.

“죽여준다!” “화끈한 놈이다!” “아팠겠지만, 곧 잊게 될 거야!” “가까스로 잘되긴 했지만, 큰일날 뻔했다” “작은 실수였지만,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모델 상황의 어떤 면들을 표현하면서도, 은유에 있어서는 상이한 근거를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손 흔들기 동작은 동일하게 해석되는 각각의 은유들을 이해하는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으로 손가락을 댄 모델 상황이 간결함 때문에 다른 영역의 경험으로 투사되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어떤 은유를 사용하든지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은 손 흔들기이며, 이것은 두 감탄사 중 하나를 수반할 수도 있다. 감탄사들은, 다양한 대상 유형에 대해서, 특수화된 사용법을 발달시켜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감탄사들은 모두 모델 상황의 어떤 면들에 근거를 두지만, 그 근거들의 상이한 면을 표현한다. 만일 ‘feeu’와 ‘oiyoioi’를 손을 흔들지 않으

면서 말했다면, 'oops'와 같은 다른 감탄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ops'는 매력과 위험의 반대 감정 병존에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 금방 당한 단순한 불운을 의미할 뿐이다. 'feeu'와 'oiyoiyoi'는 이 상황에 매력과 위험을 더한다. 그러나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지며, 서로 다른 상황에 사용된다.

두 감탄사 중에 'feeu'가 사용되는 때는

- 상당히 매력 있고
- 위험은 최소화되며
- 반대 감정이 아직 양립하지 않은 때이다.

'oiyoiyoi'가 사용되는 때는

- 매력적인 부분은 약하고
- 위험이 크며
- 반대 감정이 이미 양립하는 때이다.

따라서 낯모르는 매력적인 여자를 봤을 때, 젊은 남자는 친구에게 'oiyoiyoi'가 아니라 'feeu'라고 말하게 된다. 이어서 여자를 본 친구는 그를 보며 서로 팔을 붙들고 'feeu'가 아니라 'oiyoiyoi'라고 말한다. 화끈한 스포츠카를 보고는 'oiyoiyoi'가 아니라 'feeu'라고 하게 된다. 만일 이 차가 나중에 사고를 당할 뻔하면 'feeu'가 아니라 'oiyoiyoi'라고 하게 된다. 두 감탄사를 같이 사용해야 할 때는, 'feeu'를 'oiyoiyoi'보다 먼저 말하고, 'oiyoiyoi'를 'feeu'보다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술(詳述)은 고통을 진정시키는 후후 불기를 특수화하는 것인데, 이때 더 작은 상처에는 좀 더 입술을 모으고 상처에 직접 약하게 불며, 큰 상처에는 입을 보다 크게 벌리고 강하게 불게 된다(5단계 참조).

말하는 시간에 있어서, 모델 상황에서 주어진 손가락 화상과 진정시키는 동작은 'oiyoiyoi'와 함께 그대로 행해진다. 그러나 'feeu'의 경우에는 손가락에 화상을 입기 전에도 예상하여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때 이 소리

로 어떤 대상물에 손가락을 댈 위험이 투사되고 그 대상물을 특징짓게 된다. “이것(이 사람)은 손가락을 댈 수 있는 것(사람)이다.” 이와 관련된 의미 작용이 환유이다.

은유와 환유는 최소한 간접적인 의사 소통 행위의 영역에서도 손 흔들기 동작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손 흔들기의 발달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처음에 제기된 문제에 답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3. 상징적인 일상 제스처의 발달 근거들

앞선 분석들이 보여주듯이 손 흔들기 동작은, 어린 시절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반응으로 행하는 행동 유형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스처의 발달 과정은, 복잡한 상황 유형이 증가하면서 그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일련의 작용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A. 제스처의 발달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 자아 지향적 동작(1단계)
- 자기 지시적(2단계)
- 다른 대상들에게 지시(3단계)
- 외연 (3단계) 그리고
- 같은 분류에 속하는 대상물들 지시(4단계)

이러한 작용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만든다.

- 감정의 표현(1단계)
- 구체적인 서술(2,3단계)

- 추상적인 서술(4, 5단계) 그리고
- 은유적이고 환유적인 서술(6단계)

그리고 의사 소통 행위를 위해서

- 표현(2, 5, 6단계)
- 단정(3단계)
- 지령(4, 5단계)
- 명령적 기능(5단계)

B. 이 의사 소통 행위의 완수는 다음 사항들에 의해 가능하다.

- 지향점의 변화(자기-지향[1]에서 타인-지향[2]의 자세)
- 메타 단계의 도입(행위에서 지시 행위로)
- 단일화된 과업 동작에서 지시와 서술의 행동으로의 재구성(1단계에서 2단계로 이동)
- 모방(2의 지시에서 3의 외연으로의 이동과 구체적인 서술에서 추상적인 서술로의 이동)
- 일반화(발열 기구들의 영역 확장[5])
- 추상화(구체적인 온도 차이 감각[3]에서 다른 형태의 불에 대한 감각 [4~6])
- 은유화(불에 데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상 영역의 변화[6])
- 환유화(바로 전에 입은 화상에 대한 결과[5]로부터 이후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6]으로의 이동)
- 비언어성의 도입(지시와 서술로부터 완전한 의사 소통 행위로의 이행 [3])

C. 이러한 기의의 작용들은, 관습화가 동물의 행동 유형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제스처의 기표를 바꾼다(2.1 참고). 모델 상황의 동작 과정은 다

음의 변형을 거친다.

- 과장(2, 3, 5단계)
- 단순화(3, 5단계)
- 전형화(4, 5단계)
- 동일화(4, 5단계)
- 반복(5단계)
- 자세 변화(2~6단계)
- 강화(5단계)

따라서 동물 행동 유형의 관습화에서 동물학자들이 알아본 모든 동작 과정의 변화들이 손 흔들기 동작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동작 발달에 있어서는 동물의 관습화에서처럼, 원래 물리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된 동작 유형이 이 의도를 지시하는 행위와 연관되고, 그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물리적 의도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이 비교가 설명될 수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어쩌서 손 흔들기 동작이, 동물학자들에 의한 관습화 과정처럼, 어린 시절 손가락을 데었을 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가를 정당화한다.

동물 행동 관습화에서 얻어진 것들은, 손 흔들기 모델 상황의 형식적인 특징들이 이후의 제스처 행동 과정에서 유지되는 구별된 방법에 대응된다. 호흡기와 마찬가지로 손의 사용도 유지된다. 얼굴 표정만이 사라지는 데(3단계부터), 이것은 의사소통의 특별한 목적을 세부화한다는 새로운 과업을 가정하게 한다(cf. 5단계). 여러 동작 과정에 많은 변화가 따르지만, 이 사실이 전체적인 행동 유형에 있어서 동작들의 동일함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이 동작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된다. 가장 품위 있는 사용에 있어서도 손 흔들기는 불운의 결과를 특징짓는 것이며, 반면 호흡에 의한 행동은 진정의 의미를 전달한다('feeu'의 경우에는 약한 호흡을, 'oiyoiyoi'의 경우에는 강한 호흡을).

그러나 만일 인간과 동물에게 있어서 원래 행동 유형의 의도들을 관습화된 행동 의도들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명백하다. 동물에게 있어서 그것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기능적 변화와 관련된다. 행동 유형의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의도는 둘 다 종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잘 정의된 기본 생명 기능의 한정된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서로 다른 삶의 영역들과 매우 다양한 의도들 속에서 동작 유형의 무제한적인 이동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다른 동물의 예들은, 먹이를 주는 것,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 동지를 만드는 것이, 유혹만 하는 것 혹은 인사만 하는 것, 그리고 구애만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전이된다는 것과 단지 같은 종의 구성원들 간에만 공격성에서 진정시키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손 흔들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에 있어서 변화한다.

인간의 손 흔들기는 초기의 불운(화상)의 결과를 언급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그러한 불운과 그 결과의 공포를 예측하여 전달하는 데도 사용된다. 갑작스러운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훨씬 미묘한 감각을 의도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의사 소통에 사용될 때는 단정·지령·의문·표현과 명령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A.3과 5단계 참조), 또한 간접적 의사 소통 행위에 있어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관습화된 행동이 인간과 동물들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있어서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계통 발생학적 입장에서는 관습화를 통한 행동 유형의 기능 변화가 동물의 삶을 사회적 영역에서 현저하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손 흔들기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제스처의 역할은 그보다 크다. 은유 체계를 성립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유형은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상징적인 제스처가 유사한 은유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의 해석은 그 제스처의 모델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은유들의 집합은 소위 말하는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다.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해 이러한 결과들을 어떻게 유용화할 수 있을까? 손 흔들기라는 대상과 관련된 상징적인 일상 제스처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어린 시절의 반응을 관습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인간의 상징적인 일상 제스처가 동물학에서 말하는 관습화의 결과라고 말한 이 논문은, 이 예들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도구들이 이제는 더 많은 상징적인 제스처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여기서 사용된 합리적인 재구성 과정이 실험에 의한 결과들을 통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제스처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 개체 발생적인 연구는, 행동 유형의 발생과 관련된 계통 발생적인 연구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그럼으로써 제스처 행동의 초기 상황들은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이행까지 가능한 한 깊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이 논문은 금기의 발생과 금기를 어기는 행동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금기 위반의 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가능하게 하는 뼈대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Cranach, Mario von, Klaus Foppa, Wolfgang Lепенies and Detlev Ploog(eds.)(1979), *Human Ethology: Claims and Limits of a New Discipline*, Cambridge GB: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bl-Eibesfeldt, Irenäus(1970), *Liebe und Hass: Zur Naturgeschichte elementarer Verhaltensweisen*, Munich: Piper.
- (1976), *Menschenforschung auf neuen Wegen: Die naturwissenschaftliche Betrachtung kultureller Verhaltensweisen*, Vienna: Molden.

- (1979), "Ritual and Ritualization from a Biological Perspective," In: Cranach *et al.* 1979, pp. 1~55, 81~83.
- Ekman, Paul and Wallace Friesen(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1, pp. 49~98.
- Gehlen, Arnold(1940),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erlin: Junker and Dünnhaupt.
- Hass, Hans(1968), *Wir Menschen: Das Geheimnis unseres Verhaltens*, Vienna: Molden.
- Huxley, Julian S.(1914), "The Courtship-Habits of the Great Crested Grebe (*Podiceps cristatus*) with an Addition to the Theory of Sexual Selection," *Proceedings of the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pp. 491~562.
- (1923), "Courtship Activities of the Red-Throated Diver(*Colymbus stellatus* Pontopp). Together with a Discussion of the Evolution of Courtship in Birds," *Journal of the Linnean Society of London: Zoology* 53, pp. 253~92.
- (1966), "A Discussion on Ritualization of Behavior in Animals and Ma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251, pp. 247~526.
-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wis, David(1969), *Convention: A Philosophical Stu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orenz, Konrad(1961), "Phylogenetische Anpassung and adaptive Modifikation des Verhaltens," *Zeitschrift für Tierpsychologie* 18, pp. 139~87.
- Morris, Charles W.(1938),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Morris, Desmond(1994), *Bodytalk: The Meaning of Human Gestures*, New York: Random House.
- Poggi, Isabella(1981), *Le interiezioni: Studio del linguaggio e analisi della mente*, Turin: Boringhieri.
- Posner, Roland(1984), "Mitteilungen an die ferne Zukunft: Hintergrund, Anlass, Problemstellung und Resultate einer Umfrage," *Zeitschrift für Semiotik* 6, pp. 195~228.
- (1993), "Believing, Causing, Intending: The Basis for a Hierarchy of Sign Concepts in the Re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In: R.J. Jorna, B. van Heusden and R. Posner(eds.), *Signs, Search and Communication: Semiotic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pp. 215~70.
- Posner, Roland and Dagmar Schmauks(2002), "Synästhesie: Physiologischer Befund, Praxis der Wahrnehmung, künstlerisches Programm," *Zeitschrift für Semiotik* 24, 1.
- Posner, Roland, Klaus Robering and Thomas A. Sebeok(eds.)(1997ff), *Semiotics: A Handbook on the Sign Theoretic Foundations of Nature and Culture*, 3 vols.,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 Posner, Roland, Thomas Noll, Reinhard Krüger and Massimo Serenari(in preparation), *The Berlin Dictionary of Everyday Gestures*, Berlin: Weidler.
- Schäfer, Alfred and Michael Wimmer(eds.)(1998), *Rituale und*

Ritualisierungen, Opladen: Leske and Budrich.

Searle, John(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GB: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ckler, Wolfgang(1967), “Vergleichende Verhaltensforschung und
Phylogenetik,” In: G. Heberer(ed.), *Die Evolution der Organismen*,
Vol. 1, 3rd edition, Jena: Fischer, pp. 420~508.

Wulf, Christoph(ed.)(2001), *Das Soziale als Ritual: Zur performativen
Bildung von Gemeinschaften*, Opladen: Leske and Budrich.

Everyday Gestures as a Result of Ritualization

Roland Posner

When a certain behavior pattern is not only used as a means for achieving a physical purpose but also for indicating this purpose to others, this leads to modifications in the behavior pattern which are subsumed under ritualization in ethology. The present contribution summarizes essential aspects of ritualization in the animal world and develops the hypothesis that emblematic human gestures of a certain type are cases of ritualization. The study uses the data of the empirical research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he *Berlin Dictionary of Everyday Gestures* and giv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behavior pattern of shaking ones hand sideways in order to characterize something as dangerously attractive. This gesture is traced back to the hand movements carried out to alleviate pain after having burnt ones fingers. It is argued that in learning to understand and perform this gesture people usually start with self-oriented body movements produced for a physical purpose and pass through other-oriented body movements, denotation, designation of the objects of a natural class, domain extension and

domain change with metaphoric and metonymic predication. In this process the original physical purpose is lost and this leads to a dissociation of the visually and audibly perceptible parts of the behavior pattern and to their development into a manual emblem (gesture) and a vocal emblem(interjection). The conventionalization of these emblems makes them freely usable for a large spectrum of communicative functions(illocutionary forces). The behavioral modifications that accompany this process are described in detail and the role played by ritualization in animal life and human cultures is characterized. In conclusion, the paper proposes that the principles of analysis it pursues are applied to all emblematic human gestures in order to examine the generalizability of the ritualization hypothesis.

열쇠어: 제스처, 행동 유형, 관습화, 인체 행동, 의도-목표.